

# 월지 출토 화조문뿔장식의 용도 추정

전효수 \_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 I. 머리말

## II. 화조문뿔장식의 현황

1. 재질
2. 현재 상태

## III. 조사 내용

1. 출토 상황의 기록 자료 조사
2. 'V'자형 홈의 기능 확인
3. 전체 길이와 못 구멍 간격 조사
4. '小花釘百八十二鏹釘六十' 목서

## IV. 화조문뿔장식의 용도

1. 출토 상황 고찰
2. 문양 고찰
3. 전체 길이와 못 구멍 간격에 대한 고찰
4. 쇼소인 주자周子와의 연관성
5. 기타 월지 출토품 고찰
6. 월지 출토 화조문뿔장식의 용도 추정

## V. 화조문뿔장식의 의의

# 월지 출토 화조문뼈장식의 용도 추정

전효수

## I. 머리말

월지(月池, 안압지)는 1300여 년 전 삼국통일 직후 조성된 경주월성 별궁[東宮]의 원지苑池이다. 1975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약 2년 동안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약 3만 점의 문화재가 확인되었다.

출토품 중에는 동물뼈를 판 형태로 가공하여 등간격의 구멍을 뚫고, 구멍 사이마다 화초와 새문양을 새긴 통일신라시대의 화조문뼈장식(안1116, 이하 뼈장식) 200여 편이 있다. 이 뼈장식은 형태적·유형적으로 매우 희귀하여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 받아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일본 쇼소인[正倉院] 소장품과의 문양비교 연구<sup>1)</sup>나 병풍·불감의 문 등 어떤 물체의 가장자리 장식으로 보는 견해<sup>2)</sup>만 있을 뿐, 용도나 장식수법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은 없었다. 심지어 일부 책에서는 뼈가 아닌 상아로 소개되는 등의 오류도 있었다.

최근 국립경주박물관은 이들 뼈장식에 대한 조사와 보존처리에 착수하였다. 보존처리에 앞선 사전조사 결과, 약 40여 점이 원래의 형상으로 복원 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뼈장식 1점의 뒷면에서 ‘小花釘百八十二 鏢釘六十’<sup>3)</sup>이라는 11자字의 묵서명을 발견하는 성과를 얻었다.

본고에서는 보존처리 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토 상황과 기존의 자료 등을 재검토하여 월지 출토 화조문뼈장식의 용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최재석,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서울: 일지사, 1996).

2 고경희, 『안압지』(서울: 대원사, 1989), p. 120.

3 묵서 중 8번째 글자는 해독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날카로운 붓획의 속자일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아직 사례를 찾지 못하였다. 이번 발표에서는 우선 가장 비슷한 글자인 바늘 율鏢로 읽고, 의미 부여는 하지 않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조사를 추진하겠다. 한편으로, 여러 연구자의 질정正을 기대하는 바이다.



도 1. 화조문뼈장식 앞면



도 2. 화조문뼈장식 뒷면

## Ⅱ. 화조문뼈장식의 현황

### 1. 재질

동물의 뼈는 외부의 치밀골(緻密骨)과 내부의 해면골(海綿骨)로 구성된다. 뼈장식의 경우 문양이 있는 앞면은 매끈하고 반대면에는 불규칙한 공극(해면골)이 보인다. 따라서 재질은 동물의 뼈로 판단된다.<sup>4)</sup>

온전한 동물뼈는 DNA 분석이나 해부학적인 분석으로 동정(同定)이 가능하다. 그러나 뼈장식은 가공과정<sup>5)</sup>에서 이미 DNA가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가공과정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매장환경 하에서 골수와 세포가 분해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 형태로 가공되어 현재로서는 해부학적 동정 또한 한계가 있다.

다만, 뼈장식 중 가장 긴 것의 길이가 230mm 내외인 점으로 미루어, 육상동물의 뼈 중 이 정도 크기로 가공될 수 있는 소(牛)와 말(馬)의 정강이뼈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원형 중에서 6cm 내외의 것이 확인되므로, 두 동물의 다리뼈만을 사용했는지 다른 부위의 뼈를 혼용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 2. 현재 상태

뼈장식은 동물뼈를 갈라서 얇은 판으로 가공한 다음, 일정 간격으로 원형 구멍을 뚫고, 구

4 최재석은 위의 책(1996)에서 뼈장식의 재질을 상아로 소개하였는데, 이는 오류로 보인다.

5 보통 동물뼈를 이용한 공예품 제작과정에서는 젓물(알칼리)에 동물뼈를 넣고 끓여, 핏물과 살덩이를 분리하고 표백하는 공정을 거친다.



도 3. 뼈장식의 문양



도 4. 뼈장식의 끝부분 유형

멍과 구멍 사이에는 화초花草, 단조單鳥, 쌍조雙鳥 등의 문양을 음각하였다(도 3). 박물관에 수장收藏 중인 뼈장식의 잔존수량은 약 200여 점으로 파악되며 이중 90% 정도가 파편이다.

뼈장식의 끝은 양쪽 모두 ‘V’자 형태로 끝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일부 뼈장식의 경우 한쪽은 ‘—’자 반대쪽은 ‘V’자, 양 끝 모두 ‘—’자, 한쪽은 ‘—’자 반대쪽은 반구형의 구멍이 있는 것들도 있다(도 4). 완형 중 가장 긴 것은 230mm 정도이고, 가장 작은 완형은 60mm 내외이다. 평균 폭은 17~18mm 정도, 몇몇은 20mm 내외인 것도 있다. 구멍의 간격은 55~73mm이다. 두께는 1~1.5mm 정도다.<sup>6)</sup>

뼈장식의 끝 모양과 너비의 차이는 치장 위치에 따른 차이, 혹은 연결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다 정확한 결론은 보존처리 및 추가조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Ⅲ. 조사 내용

#### 1. 출토 상황의 기록 자료 조사

현재 경주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뼈장식은 약 200여 편이다. 1978년 발간된 보고서<sup>7)</sup>는 화조문뼈장식의 출토 위치와 출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소략하게 다루어, 거시적인 정황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행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일체의 발굴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있어 절차를

6 너비, 길이의 수치는 보존처리가 완료된 후, 소폭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

7 『안압지』(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8), p. 353.



도 5. 트렌치 26 지점(월지 모형. 붉은 지점)



도 6. 뼈장식 출토 상황

거처 열람할 수 있었다.

자료 열람을 통해 윤근일<sup>8)</sup>이 작성한 유물조사카드, 고경희<sup>9)</sup>가 작성한 야장기록 등을 찾았다. 검토 결과 뼈장식과 관련된 중요 내용은 윤근일이 유물카드 형태로 기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후에 고경희가 야장형태로 재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윤근일이 작성한 1975년 6월 3일, 6월 4일, 6월 9일 유물조사카드<sup>10)</sup>를 통해 화조문뼈장식의 출토상황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윤근일의 기록에 따르면, 화조문뼈장식은 대부분 트렌치 26 구역<sup>11)</sup>에서 군집형태로 출토되었으며(도 5), 기와 및 건축 상부재, 무너진 호안석축護岸石築 돌 아래에서 다수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일부는 ‘뼈장식 구멍에 알맞은 장식[金銅葉]<sup>12)</sup>이 함께 출토되었다’라고도 기록하였다. 뼈장식은 다수의 수정류 및 화불들과 뒤엉켜 출토되었고(도 6), 처음에는 골척骨尺, 번幡 장식 등으로 보았으나, 금동화형장식과 함께 출토되어 무너진 건축물의 장식일지도 모른다고 의견을 붙여 두었다.

## 2. ‘V’자형 홈의 기능 확인

그간의 화조문뼈장식 관련 논고와 발간물에서는 재질, 문양, 원형 구멍, 공반 출토된 금동화형장식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끝부분의 ‘V’자형 홈에 대한 해석은 찾아볼 수 없었다.

8 당시 조사원. 前 경주문화재연구소장.

9 당시 조사원. 前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

10 「안압지야장」 51·10·41·42·45·46, 56·17·40·41. (아카이브 등록번호)

11 발굴보고서는 서안호안西岸護岸 바닥에서 출토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 대략 현재의 2번, 3번 건물지의 호안석축 바닥 갯벌층으로 보인다.

12 뼈장식과 금동화형장식의 공반 출토사진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고경희도 책 「안압지」(1989)에서 이 화조문뼈장식과 금동장식의 출토정황을 다루고 있는데, 참고 도판 일부에서 현재의 금동화형장식이 보인다. 현재 월지관 화조문뼈장식 위에 올려진 진열품이 윤근일이 말했던 금동엽으로 보인다.



도 7. 'V'자형 홈의 구조와 기능

이번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뼈장식의 양 끝 'V'자형 홈의 기능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뼈장식 끝부분의 'V'자형 홈 역시 원형 구멍과 같은 못구멍이다. 부연하면 뼈장식 끝 'V'자형 홈 두개를 마주시키면 마름모 모양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공간 안에 금동화형 장식을 박아 넣으면 두 개의 뼈장식은 하나의 개체로 조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도 7). 또한 이 작업을 반복하면 뼈장식의 길이는 무한대로 늘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일부 'V'자형 홈 주변에서 확인되는 반구 형태의 흔적을 통해 확인되었다.

### 3. 전체 길이와 못 구멍 간격 조사

뼈장식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200여 점의 전체 길이, 못 구멍의 수, 못 구멍의 간격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길이는 족히 약 10m가 넘으며, 확인된 못 구멍의 수는 200여 개 이상, 못 구멍의 간격은 대략 57mm 내외, 65mm 내외, 70mm 내외 3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도 8).<sup>13)</sup>

못 구멍의 간격은 개체에 따라 소폭의 오차가 있으나, 필자가 주목한 것은 1개체의 완형 길이와 뼈장식에 뚫린 구멍의 수량과의 관계임을 밝힌다. 즉 완형의 전체길이를 못 구멍의 숫자로 나누었을 때('V'자형 홈의 경우 0.5개로 계산) 위와 같은 3종류의 길이로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또한 분류과정 중 4점의 뼈장식에서는 구멍 바로 옆에 재차 구멍을 뚫은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뼈장식의 구멍간격이 장식 위치에 따라 의도적으로 조절된 증거로 보인다(도 9).

13 세로 방향으로 조개어진 뼈장식의 경우 제작을 찾지 못한 상태로 중복 계산되면 전체 길이가 왜곡될 수 있다. 현재의 측정값은 보존처리 전 조사 결과로, 향후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일단 10m 이상이라고만 적겠다. 못 구멍의 수량 역시 최솟값으로 200여 개 이상으로만 기술한다. 못 구멍의 간격은 완형의 총 길이를 못 구멍의 수로 나눈 평균값이다.



도 8. 못 간격의 종류



도 9. 구멍 간격을 조정한 뼈장식

#### 4. ‘小花釘百八十二 鍔釘六十’ 목서

##### 1) 발견 경위

보존처리에 앞서, 유물조사와 과정에서 목서가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뼈장식 1점을 발견하였다(도 10). 적외선 촬영결과 ‘소화정백팔십이 율정육십’으로 판독하였다(도 11).<sup>14)</sup> 목서는 발굴 이후 기록일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제작 당시에 적은 목서라면 이미 학계에 보고가 됐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현미경 조사와 관련 자료검토를 함께 진행하였다.

현미경 조사결과 글씨 윗면에 진흙 등 다수의 이물질이 고착되어 월지에 빠지기 전에 쓰여진 것이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고대의 목서라고 결론지었다.

##### 2) 목서의 내용과 성격

목서는 두 종류의 못과 그 수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화정小花釘과 율정鍔釘 그리고 그 성격은 무엇일까?

우선 소화정과 율정을 뼈장식의 출토 상황과 연계하여 유추해 보았다. 발굴 보고서에서는 “等間隔으로 구멍을 뚫고 金銅으로 裝飾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발굴현장에 있었던 고경희는 “이 골편 중 1점의 구멍에 금동제 화형 못[金銅製花形釘]이 박힌 채 출토되었다.”<sup>15)</sup>라고 증언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목서에서 말하는 소화정은 화조문뼈장식과 함께 출토된 금동 화형장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율정에 대한 판단은 그 음운이 명확해질 때까지 판단을 미루고자 한다.<sup>16)</sup> 다만 율정 역시 뼈장식과 관련된 못의 종류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14 주3) 참고.

15 고경희, 앞의 책(1989), p. 121.

16 주3) 참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못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한 고대의 기록이 발견된 예가 없어서, 묵서의 성격은 비슷한 시기 일본 아스카 호[飛鳥池] 공방유적<sup>17)</sup> 출토 목간자료를 통해 추정해 보고자 한다. 아스카 호 유적에서는 못의 모양과 수량을 기록한 목간이 여럿 출토되었다.<sup>18)</sup> 어떤 것은 목정木釘에 수량만 적어 ‘이런 모양의 정 몇 개’를 만들어 달라는 시방서示方書 성격의 것도 있다.<sup>19)</sup>

이들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해보면, 뼈장식에서 발견된 묵서의 성격은 뼈장식과 관련된 못의 주문서나 납품확인서일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시방서

나 규격서의 성격을 모두 지녔을 수도 있다. 즉 못의 수량과 종류를 이미 완성된 뼈장식에 적어 주문한다면, 뼈장식과 관련된 제품 제작이 용이할 것이다.



도 10. 묵서 컬러사진



도 11. 묵서 적외선사진

## IV. 화조문뼈장식의 용도

### 1. 출토 상황 고찰

윤근일은 유물조사카드에 뼈장식 다수가 서편 호안석축 주변 트렌치 26 구역에서 출토되었다고 기록했다. 군집한 출토 상황으로 볼 때 뼈장식은 트렌치 26 주변을 중심으로 산일散逸되었고, 이후 건물과 석축이 붕괴되면서 뼈장식을 덮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다수의 수정류 및 화불 등 불공품과 뼈장식이 뒤섞여 출토되었다는 것이다. 고경희는 뼈장식이 화불장식, 보주장식, 천개장식, 수정, 장신구류 등과 공반 출토되었다는 근거로 불공품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했다.<sup>20)</sup>

17 아스카 호[飛鳥池]는 근세에 쌓은 저수지의 명칭이다. 만요분가칸[萬葉文化館]이 위치한 바로 아래에 있다. 아스카시대에는 아스카 기요미하라궁[舒御原宮] 북동쪽, 사카후네이시[酒船石] 유적 바로 북쪽에 위치하며 아스카 사[飛鳥寺] 남동쪽 귀퉁이에 접해 있다. 아스카에서 가장 많은 8,100점이나 되는 목간이 출토되었다. 이치 히로키, 이병호 역, 『아스카의 목간』(서울: 주류성, 2015), pp. 139-141.

18 卑志釘, □百廿 小切釘□, □難釘五十六□, □堅釘百六十, 大釘一, 内工釘五十 등.

19 『飛鳥藤原京木簡1—飛鳥池・山田寺木簡—解説』(奈良: 奈良文化財研究所, 2007).

20 고경희, 앞의 책(1989), p. 126.





도 12. 쇼소인 상자



도 13. 쇼소인 상자



도 14. 금동화형장식

이러한 출토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우선 뼈장식이 수장된 이후에 건축물이 붕괴되었으며, 뼈장식과 불구류들은 수장 시점이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뼈장식이 부착되었던 모체母體의 성격과 불구류들과의 연관성은 꽤 신뢰할 만한 추측으로 판단된다.

## 2. 문양 고찰

국내 유물 중 화조문뼈장식의 문양이 보이는 것들은 주로 도토류(기와, 풍로, 용기류 등) 뿐이다. 때문에 이들은 용도 추정을 위한 비교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 최재석은 화조문뼈장식의 문양과 쇼소인 소장품과의 문양비교를 통해 쇼소인 소장품과 통일신라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sup>21)</sup> 이에 쇼소인 소장품에서 뼈장식의 문양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았다. 검토 결과 뼈장식의 화초문, 단조문, 쌍조문과 일치하거나 유사성이 있는 문양이 바둑알, 자[尺], 나무상자, 탁자 등 다수의 유물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쇼소인 상자[箱子]들에서는 뼈장식의 조문[鳥紋]과 금동화형장식의 화문이 동시에 확인되었는데(도 12·13), 이중 눈에 띈 것은 상자테두리에 장식된 오엽화문[五葉花紋](도 14)이다. 뼈장식에 끼워진 채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금동화형장식의 문양이 쇼소인 상자들의 테두리에서 확인된 것이다. 일부는 얇은 나무판을 덧대어 마감한 특징도 확인되었다(도 13).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봤을때, 뼈장식은 목가구류에 붙었던 장식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 3. 전체 길이와 못 구멍 간격에 대한 고찰

뼈장식의 전체 길이는 10m 이상이며, 확인된 못 구멍의 간격은 3종류이다. 뼈장식이 붙었

21 최재석, 앞의 책(1996).

던 모체는 1개체일 경우와 그 이상일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으나, 앞서 확인한 출토상황(트랜치 26 구역을 중심으로 한 산일)으로 볼 때 1개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분명한 것은 1개체든 2개체 이상이든 모체에 붙는 위치에 따라 의도적으로 못 구멍의 간격을 조절했다는 것이다. 또한 못 구멍의 간격이 3종류라는 것은 3종류 이상의 변을 가지는 직육면체 형태의 입체물일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4. 쇼소인 주자(廚子)와의 연관성

월지 출토 삐장식의 문양, 전체 길이, 못 구멍 간격 등을 종합했을 때 삐장식의 모체는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녔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① 삐장식을 덧대고 장식못으로 고정하였음.
- ② 못의 간격이 부위에 따라 2~3종류인 입체물.
- ③ 문양이나 못의 간격 총합이 5m 혹은 10m 이상인 중대형.
- ④ 불공품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쇼소인에서 그 동안 공개한 소장품 중 이러한 조건에 가장 근접한 유형으로 주자<sup>22)</sup>류가 확인되었다. 특히 이러한 조건에 가장 충실한 것은 북창<sup>北倉</sup>의 적칠관목주자<sup>赤漆觀木廚子</sup>(도 15<sup>23)</sup>·16<sup>24)</sup>)이다.

이 주자는 느티나무 판재로 제작되었고, 모서리에 얇은 테두리<sup>25)</sup>를 하나 더 대고 금속정<sup>金屬釘</sup>을 박은 수법이 화조문삐장식의 수법과 빼닮았다. 못의 수량은 약 230여 개, 금속정의 총 간격은 약 13m 정도이다. 화조문삐장식에서 나타났듯이 못의 간격이 부위마다 다르다는 특징도 보인다.<sup>26)</sup>

북창의 적칠관목주자는 일본의 저명한 가구장<sup>家具匠</sup> 구로다 다쓰아키<sup>黒田辰秋</sup><sup>27)</sup>가 제작지를

22 주자(廚子)는 불상, 불화, 사리, 경전 등을 안치하는 용기로, 나라 시대에는 경권(經卷)이나 서적 등을 넣어두는 상자 모양의 것을 주자라 불렀다. 스키모토 가즈키, 서각수·송완범·서보경 역, 『정창원 역사와 보물』(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5), p. 79.

23 奈良國立博物館, 『正倉院展 50回』(奈良: 奈良國立博物館, 1998), p. 20.

24 西川明彦, 『正倉院紀要 第34号, 赤漆文觀木御厨子と<赤漆觀木厨子>』(奈良: 正倉院, 2012), p.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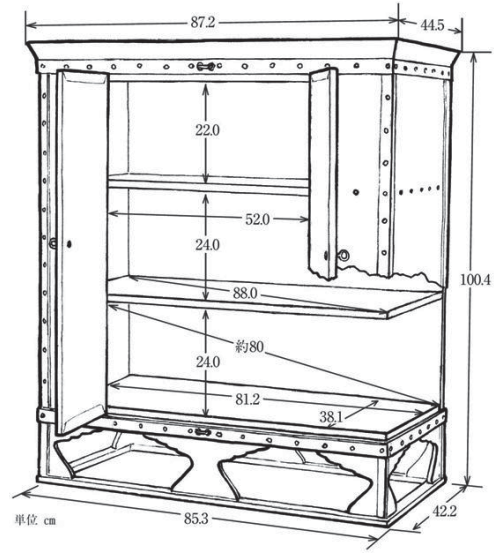
25 쇼소인의 적칠관목주자의 테두리 재질은 나무이며, 삐장식은 동물의 뼈로 만들어졌다는 차이점이 있다.

26 쇼소인 소장품의 못 수량과 간격은 국립나라박물관 발간도록의 『正倉院』 50회 pp. 20~21의 사진으로 분석하였다. 정면과 후면의 사각 테두리는 약 82cm 정도의 정사각형 형태인데, 가로 변에는 14개의 세로 변에는 13개의 정이 사용되었다.

27 1904~1982년, 일본의 목공예, 칠공예가. 1968년 일본 황실의 가구를 제작하였고, 1970년에는 일본 목공예계 최초로 인간국보로 불리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받았다.



도 15. 쇼소인 적철관목주자(北倉 2)



도 16. 적철관목주자 주요 수치

한반도로 단언한 물품이다. 국가진보장國家珍寶帳<sup>28)</sup>에 따르면 당시(756년) 쇼소인에는 두 점의 적철관목주자가 봉헌되었는데, 하나는 쇼무 천황[聖武天皇]<sup>29)</sup>의 소장품(제1주자), 또 하나는 후지와라노 가마타리[藤原鎌足]<sup>30)</sup>가 백제 의자왕義慈王에게서 받은 것(제2주자)이라고 한다. 현재는 둘 중 하나는 사라졌고 남은 하나가 바로 북창의 주자이다.<sup>31)</sup>

## 5. 기타 월지 출토품 고찰

### 1) ‘불감제일佛龕第一’이 새겨진 현판

주지하다시피 월지에서는 ‘불감제일佛龕第一’이라 새겨진 불감의 칠기현판이 출토되었다(도 17). 때문에 이미 학계에서는 통일신라시대에 불상 등 불공품들을 보관했던 불감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여기에 쇼소인 국가진보장의 의자왕 관련 기록을 더해 보면, 당시 한반도에서 불감이나 주자가 생산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도 17. ‘불감제일佛龕第一’이 새겨진 현판

28 756년 작성된 쇼소인 현물장부.

29 701~756년. 일본 45대 천황. 쇼소인의 현물은 756년 쇼무 천황의 49재일인 6월 21일 처음 이루어졌다.

30 614~669년. 당대 왜 조정의 실력자였던 권신.

31 현재 남아있는 것이 1주자인지, 2주자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앞의 책(2015), pp. 79~90.

## 2) 월지 출토 느티나무 가구목

2016년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월지 출토 목재 500여 점에 대한 수종조사연구<sup>32)</sup>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난간을 위시한 다수의 목재에서 느티나무 수종이 식별되었다.

느티나무로 식별된 목제품에는 표면에 칠 흔적이 남아있는 판재와 각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가구목재로 판단된다(도 18·19). 이 중 각재의 경우 결구공의 위치가 정중앙을 벗어나 한쪽으로 치우친 특징이 보이고 있으며(도 19), 동일한 특징이 쇼소인 소장 적칠관목주자 다리의 결구부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도 18. 느티나무 판재



도 19. 느티나무 각재

## 6. 월지 출토 화조문배장식의 용도 추정

월지 발굴 당시의 출토 상황, 기존 연구자료, 배장식의 문양 및 구조적인 특징, 역사적 배경 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슷한 시기의 유물들이 산적해 있는 일본 쇼소인 소장품에서 단서를 찾아보았다.

검토 결과 월지 출토 화조문배장식은 통일신라시대 주자류의 모서리와 선반의 고정 부위에 붙었던 장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근거는 못 구멍 전체 길이의 유사성과, 고정 위치에 따라 못 구멍의 간격이 구분되는 두 유물의 공통점이다. 두 번째 근거는 모체에 못을 박는 과정에서 안쪽에 나무 혹은 배장식을 덧대는 수법의 유사성이다. 세 번째는 주자의 용도와 성격을 감안할 때, 1975년 발굴당시 조사원 윤근일과 고경희가 의심했던 트렌치 26 구역의 불구류 공반 출토상황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주자들이 갖는 독특한 구조 즉, 선반이다. 일반적인 가구였다면 수백 개의 못이 사용될 필요가 없다. 반면 내부에 선반이 있는 경우에는 선반 하나를 고정하는데 못이 수십 개 필요하게 되므로 배장식의 못 구멍이 200여개가 넘는다는 사실은 선반이 있는 주자류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근거로 보인다. 다섯 번째는 최근, 월지에서 출토된 목제품의 수종조사 결과, 표면에 칠 흔적이 남아있는 다수의 느

32 『경주 동궁과 월지 수종연구』(경주: 성림문화재연구원, 2016). 동궁과 월지 복원을 위한 고증연구의 일환으로 경주박물관 소장품의 수종식별을 국립경주박물관과 성림문화재연구원이 공동 진행함.

티나무 판재와 각재들이 확인되고 있고, 일부에서 쇼소인 소장 주자의 특징들이 보인다는 점이다.

## V. 화조문배장식의 의의

앞에서 월지 출토 화조문배장식의 현황, 조사내용, 그리고 화조문배장식의 용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월지 출토 화조문배장식은 통일신라시대의 현존하는 유물로서 비슷한 시기 일본 쇼소인 유물과 비교할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그간 화조문배장식은 쇼소인 소장품과의 문양 유사성 등에서 유의미한 비교연구가 있었다면, 이번 연구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장식의 용도를 특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V’자형 홈의 역할을 통해 당시의 뛰어난 공예수법이 확인되었고, ‘소화정백팔십이 율정육십’ 명문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못의 크기와 종류를 구분해 사용했으며, 수數개념이 명확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월지에서 출토된 금동초심지 가위, 칠기 연꽃봉오리 장식, 청동순가락 등과 쇼소인 소장품과의 관계성은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었으나, 목가구들의 연계성은 문양 외에는 입증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었다.

월지 출토 화조문배장식의 장식수법이 쇼소인의 가구류, 그 중에서도 주자류에서 보이고 있다. 이는 쇼소인 소장품과 통일신라와의 관계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향후 보존처리와 정밀 조사를 통해 이 논고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 A Theory on the Purpose of the Bone Ornaments Inscribed with Flower and Bird Patterns Excavated from Wolji Pond

Jeon Hyosoo \_ Conservator, Gyeongju National Museum

Wolji Pond (Anapji) is the remains of an ancient pond originally made in the grounds of the East Palace of Gyeongju (Inwang-dong), which was built some 1,300 years ago right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on the Korean Peninsula. Excavations were begun in March 1975 and continued for about two years until December 1976. Approximately 30,000 relics spanning the Unified Silla Period to the Joseon Period were unearthed from the archaeological site, including 200 bone ornaments inscribed with flower and bird patterns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At present,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is carrying out preservation treatment of these bone ornaments. A preliminary analysis conducted before the treatment has identified the function of the V-shaped groove and revealed that the spacing between the nail holes can be grouped into 3 types. The conclusion of the analysis is that the bone ornaments must have been attached to a hexahedron-shaped structure. Furthermore, when the surroundings of the excavation site are considered, together with a reexamination of the associated relics and comparisons with the artifacts kept at the Shosoin Treasure House in Japan,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bone ornaments were associated in some way with containers that housed Buddhist relics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In the past, such bone ornaments were analyzed by comparing their patterns to similar artifacts kept at the Shosoin Treasure House in Japan. As a result of these analyses, the bone ornaments were thought to be decorations attached to the edges of certain objects such as folding screens or to a door that opened into a chamber in which a statue of Buddha was kept. However, the evidence for such a postulation is very insubstantial.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because it goes one step further and identifies the specific function of these bone ornaments. In addition, a book titled *Sohwajeongbaekpalsibi Yuljeongnyuksip* dating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was discovered in the course of this research. The

book is a real document that sheds light on trading practices and how people viewed numbers in those days.